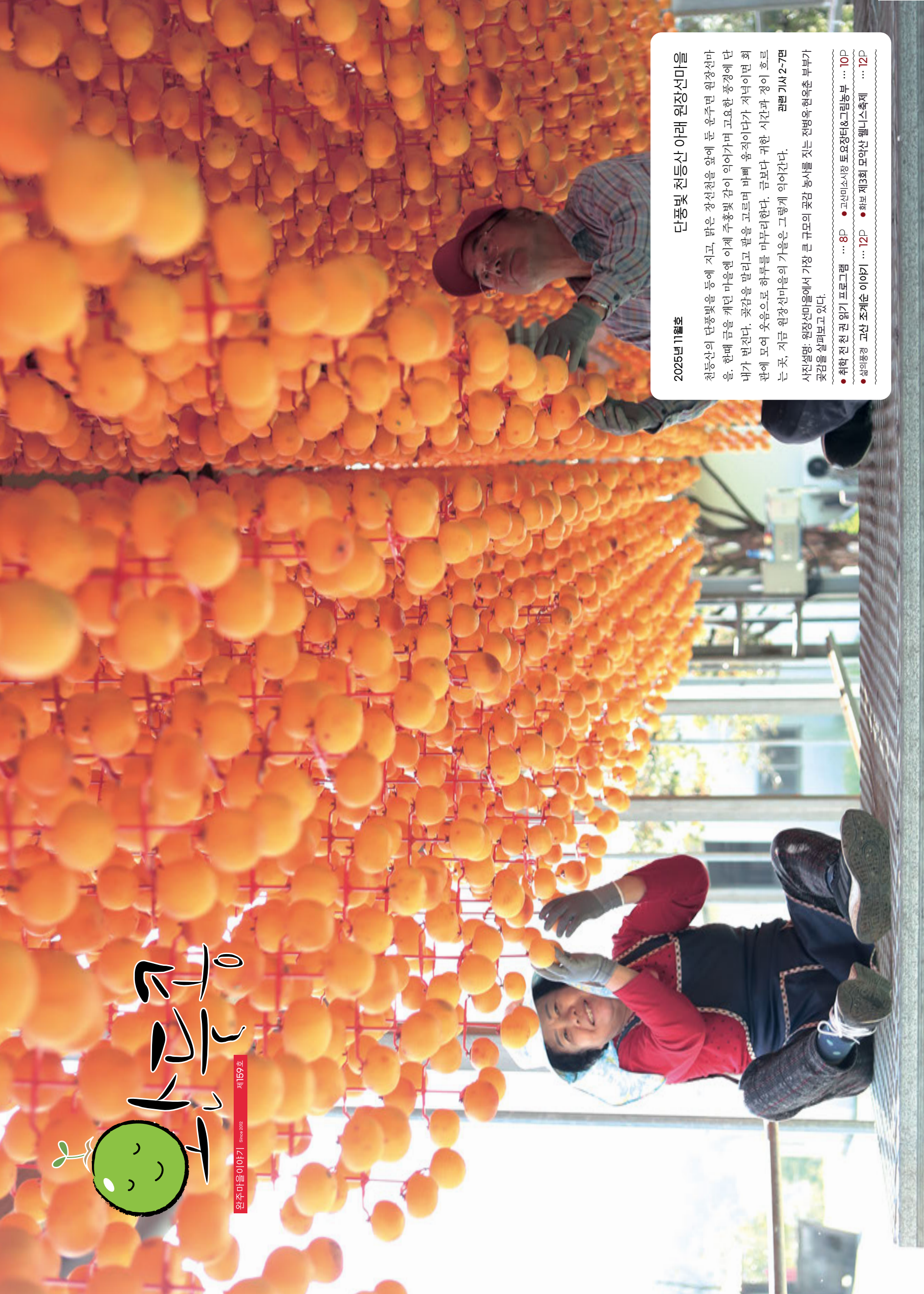




토스투구

원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59호



2025년 11월호

단풍빛 천등산 아래 원장선마을

천등산의 단풍빛을 등에 지고, 맑은 장선천을 앞에 둔 운주면 원장선마을. 한때 금을 캐던 마을엔 이제 주홍빛 감이 익어가며 고요한 풍경에 단내가 번진다. 꽃감을 말리고 팔을 고르며 바깥 움직이다가 저녁이면 회관에 모여 웃음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 금보다 귀한 시간과 정이 흐르는 곳, 지금 원장선마을의 가을은 그렇게 이어간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원장선마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꽃감 농사를 짓는 전병옥·현옥준 부부가 꽃감을 살펴보고 있다.

- 취학 전 친 권 이 기 포 로 그 램 ... 8P ● 고산미소시정 토요장터&그림놀이 ... 10P
- 삶의풍경 고산 조계순 이야기 ... 12P ● 화보 제3회 모악산 웰니스축제 ... 12P

휘돌아 마을 한 바퀴

금 캐던 마을, 이젠 금보다 귀한 꽃감이 단내 솔솔

마을 앞으로는 맑은 장선천이, 마을 중심부에는 단풍물 들어가는 천등산이 자리 잡은 운주면 원장선마을. 산빛이 곱고 물이 맑아 그야말로 '산자수명(山紫水明)'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곳이다. 다른 곳에서는 마무리된 추수가 원장선마을에서는 한창이다. 곳곳에서 잘 익은 감을 따서 손질하고, 껍과 팔을 넣어 말린다. 서리가 내리기 전 해야 할 일이 많은 이들이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 천등산이 굽어살피는 마을

농협과 천등산 슈퍼 사이에 난 길을 따라 들어가면 다리 아래 흐르는 장선천 너머로 고즈넉한 마을 풍경이 펼쳐진다. 원장선마을에 들어선 객의 눈길을 가장 잡아끄는 것은 마을 한가운데 우뚝 솟은 천등산이다. 천등산은 짙은 숲을 품은 돛형의 암릉으로, 봄에는 고사리, 여름에는 도라지꽃과 나리꽃이 지천이다. 가을이 더 무르익으면 울긋불긋한 단풍과 기암괴석이

어우러진 경관을 볼 수 있다.

원장선마을 사람들은 천등산을 특별하게 여긴다. 원장선마을 토박이 백남선(94) 어르신은 “우리 마을은 천등산을 등지고 금강 지류가 흐르는 배산임수 명당에 있다”며 “천등산의 가호를 받은 덕분에 전쟁 때에도 아무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천등산에 얽힌 신비로운 설화도 들을 수 있었는데, 견훤이 후백제를 세우기 위해 천등산 기슭에 용계산성을 쌓고 적군과 싸울 때 천등산 산신이 환히 산을 밝혀주었다는 이야기다. 산신의 도움으로 견훤이 승리한 뒤부터 천등산의 지명에 하늘 천, 등불 등을 썼다는 말도 있다. 천등산 중턱에는 아직도 신당 터가 남아있다.

» 장선광산 이후 심어진 감나무

원장선마을이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 전, 이곳은 금광으로 마을이 분주했

김수홍 씨가 건설 보수작업차를 몰며 감을 따고 있다. 전주에서 마을로 들어온 지 2년째로 이제는 감농사도 제법 손에 익었다.



마을 뒷편에 떡 버티고 누운 천등산
견훤이 용계산성 지을 때
산신이 불 밝혀줬다는 설화도

요가로 농사일에 지친 몸 풀고 나면
저녁식사 함께하며 도란도란

던 시절이 있었다고 어르신들은 이야기한다. 일제강점기부터 시작된 장선광산(금당)은 해방 이후 동원탄좌에서 운영했고, 채광량이 여전한 덕분에 광산 일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광산엔 새벽부터 등짐을 진 광부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광산에서 나오는 금은 마을사람들뿐 아니라 인근 운주사람들의 생계도 책임졌다.

김기홍 이장은 “폐광 전에는 마을의 주요 소득사업이 금광이었다. 88올림픽 무렵에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감나무가 조금씩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무렵부터 논밭을 일구던 주민들이 산자락마다 감나무를 심기 시작했고 90년대 중반이 되자 마을은 감이 익어가는 풍경으로 바뀌었다. 김 이장은 “지금은 대부분 15년 이상, 길게는 20년 가까이 감농사를 짓고 있다”며 운주감은 품질이 좋아 상품성도 뛰어나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산나물과 꽃감이 마을의 새로운 보물이 되어, 예전 금광 시절 못지않게 마을을 살찌우고 있다.

» 주홍빛 수확의 계절

11월 3일, 늦가을 햇살이 들자 마을 곳곳에서 달콤한 감 냄새가 퍼진다. 한 달 넘게 이어진 수확철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대부분의 농가는 감을 따고 깎는 일까지 마무리했다. 집집마다 줄에 매단 꽃감이 바람에 흔들리며 원장선마을의 계절을 알린다.

마을 끝자락에서는 아직 감을 따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김수홍(46) 씨가 건설 보수작업차를 몰며 감나무 곁을 오르내렸다.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아침 7시부터 시작했는데 벌써 서른 상자는 채웠죠.” 그가 타고 있는 건 마을에서 흔히 쓰는 감따기용 굴착기가 아니다. 원래 시설 보수에 쓰이던 장비를 직접 써보니 감 수확에도 제격이었다.

“감나무 높이가 들쭉날쭉한데 평지에서는 이걸로 감을 쉽게 딸 수 있을 것 같아서 시도해봤어요. 써보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김 씨는 전주에서 마을로 들어온 지 2년째로 이제는 감농사도 제법 손에 익었다. “이제는 감 따는 일도 어느 정도 요령이 생겼어요. 처음보다 훨씬 수월해요.” 그가 마지막 감을 내려놓을 무렵 마을 곳곳에서는 또 다른 수확이 이어지고 있었다.

강옥순(84) 어르신은 팔 수확을 마치고 밭에 앉아 낱알을 고르고 있었다. “올해는 팔을 한 키로쯤 심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썩은 게 많아. 그래도 골라내서 먹어야지. 팔죽이라도 해먹을라고.”

현옥춘(73) 부녀회장 집에서는 생강 손질이 한창이었다. 햇벌이 드는 마당에는 길보리가 널려 있었고 바람에 말라가는 냄새가 퍼졌다. “감은 어제 다 깎았어. 꽃감 건조되는 동안에는 생강 손질도 하고, 길보리도 말려서 엿기름 만들고 해. 조금씩 먹으려고 하는 거야. 해마다 이맘때는 바쁘지”

» 요가수업과 함께 나누는 저녁식사

같은 날 오후 4시가 가까워지자, 바쁜 농사 일과에도 어르신들이 삼삼오



김기홍 이장이 2년 전 드론으로 찍은 마을사진

오 마을회관으로 모였다. 올해 초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사업인 시민자율학교 ‘OO마을학교’ 프로그램으로 열린 요가수업이다.

수업이 시작되자, 농사일로 빠근했던 몸이 하나둘씩 펴지며 어르신들의 표정에도 한결 여유가 감돌았다. 현옥춘 부녀회장은 “요가를 하면 농사하느라 빠근했던 몸이 금방 풀려서 좋다”고 말했다. 김기홍 이장은 “농사에 지친 주민들이 이런 수업으로 잠시 환기를 하는 느낌이라 참 좋다”고 덧붙였다.

수업이 끝난 후에는 어르신들이 함께 저녁식사를 나눴다. 요리와 반찬을 함께 준비하며 담소를 나누는 시간은 마을의 또 다른 일상이자 주민들 간 소통의 장이 됐다. 김 이장은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저녁도 항상 함께 먹는다”며 미소 지었다.

긴 농사철 한창, 붉게 물든 감처럼 올가을 원장선마을은 풍요로움을 말없이 전한다. 🍂



팔 터는 강옥순 어르신과 요가수업 중인 주민들

이한순 어르신

“감 깎는 날이면 자식들 전부 총출동”

아픈 아내 사남매가 간호 중
해외여행 같이 못가 마음의 한


곶감농사는 올해로 마지막
평생 모은 농지는
자녀들에게 미리 똑같이 증여

이한순(91) 어르신은 구순이 넘었지만, 매년 감 수확철이면 사남매와 함께 운주곶감 농사를 이어간다. “감 깎는 건 늘 해오던 일이니까 자식들 이랑 같이 해, 혼자서는 못 하지.” 예전에는 손으로 감을 하나하나 깎았지만, 지금은 기계 두 대로 작업한다. 곶감은 비가 오면 안 되고 곰팡이가 피지 않도록 꼼꼼히 말려야 단맛이 오른다. 서울에 사는 자식들도 내려와 도와 말린 곶감은 지인들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올해 석동한 감은 약 삼천 개다. “비가 오면 천도 쳐

줘야 하고, 거름과 토비, 소독도 여러 번 해야 하지. 자식들이 중간에 와서 도와주니까 힘들지만 가장 보람 있어.”

이 어르신은 결혼은 그 시절 늦은 26살에 했지만 농사와 살림, 자식 교육에 온 힘을 쏟아 사남매를 모두 대학까지 보냈다. “늦은 만큼 더 농사 열심히 짓고 애들 키우느라 바쁘게 살았어.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지금 생각해도 후회는 없네.” 하지만 4년 전부터 부인이 투병 중이라 서울 병원에 입원해 있다. 사남매가 돌아가며 간호를 맡는다. 몸이 좋을 때는 부인과 국내 여행도 자주 다녔지만 이제는 함께 떠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 해외여행을 못 데리고 간 것이 아직도 마음 한편에 남는다고 했다.

오랜 세월 가족과 함께 살아온 시간 속에서 재산과 생활도 조금씩 정리했다. 재작년에는 논과 밭을 포함한 농지를 사남매에게 4분의 1씩 증여하며 등기도 모두 내주었다. “열심히 살아서 자식들에게 이런 것도 물려줄 수 있었지. 다들 똑같이 나눠 줬어, 딸이고 아들이고 똑같이.”

농사와 살림에 평생을 바쳐온 이 어르신은 올해까지만 곶감 농사를 할 계획이다. “이제 나이도 있고 힘도 많이 빠졌어. 다행히 자식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할 수 있지,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남은 시간은 건강하게, 하루하루 잘 살고 싶어.” 



감나무 앞에 선 이한순 어르신. 늦장가에 더 부지런히 살며 아이들을 키우느라 산 세월에 후회는 없다.



자식들과 같이 깎은 감이 덕장에서 잘 건조되고 있다.

“마을서 제일 큰 꽃감농가, 지금은 단감 수확 한창”

50년 꽃감농사
전병옥·현옥춘 부녀회장 부부

최대 60일간
차고 건조한 바람에 애지중지 건조
한번 맛보면 우리 꽃감 단골 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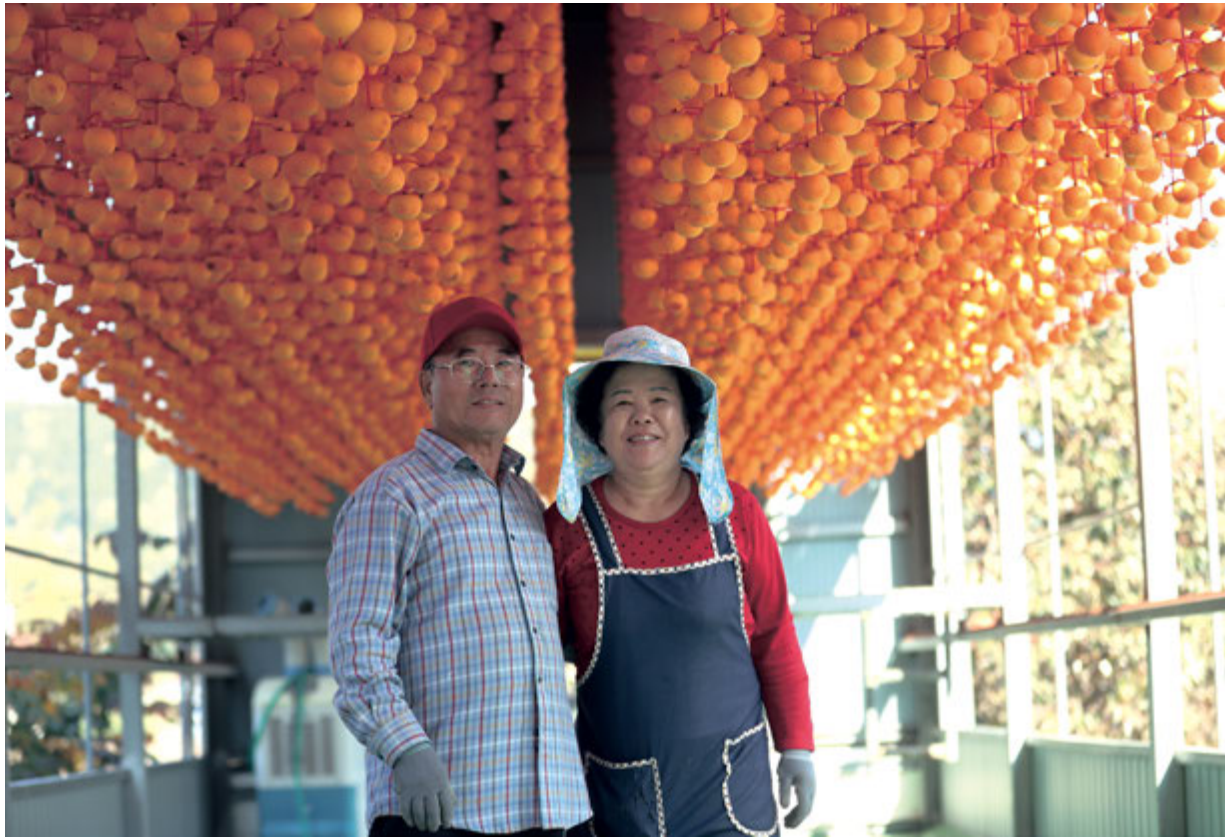


천등산 등산로 맞은편, 원장선마을에서 제일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병옥(79)·현옥춘(73) 부부의 꽃감 덕장이 주홍빛으로 물들었다. 멀리서도 널찍한 덕장과 서너 채의 창고가 눈에 띈다. 덕장 안에 손질된 감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모습에서 가을의 풍요로움이 물씬 느껴진다.

부여가 고향인 병옥 어르신이 스물아홉, 옥춘 어르신이 스물셋일 때 결혼해 이곳에 터를 잡았다. 특히 옥춘 어르신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앙촌이라 술·담배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다들 좋은 이웃”이라며 마을 분위기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마을 사람들의 성화에 부녀회장을 다시 맡게 된 그는 “딴 사람 못하니까 나보고 하라고, 나 없는 사이에 날 후보로 내놨더라고”라며 웃었다.

지난주까지는 온 식구가 총출동하여 감을 수확하고 깎는 일로 바빴다. 세 남매까지 고향에 내려와 함께 감을 따고 덕장에 감 거는 일을 도왔다.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꽃감을 만들며 쌓아온 특별한 비법이 있는지 묻자, 옥춘 어르신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다.


“잘 익은 감을 골라 세척하고, 껍질을 깨끗이 깎아. 그다음 감꼭지에 고리를 끼워서 통풍이 잘되는 덕장에 매달리는 과정이 가장 중요해. 최소



50여 년 동안 꽃감농사를 이어온 전병옥·현옥춘 부부가 잘 말라가는 꽃감을 배경으로 서 있다.

40일에서 오래 걸리면 60일까지 차고 건조한 바람과 햇볕에 자연 건조해야 쫄깃하고 당도 높은 꽃감이 되지. 작년에는 비가 많이 와서 바람이 습했는데, 이번 가을에는 한결 날씨가 좋은 것 같아서 다행이네.”

예전에는 손으로 감을 일일이 깎았지만, 기계가 나온 뒤로 전보다 대량생산이 수월해졌다. 이렇게 만들어진 꽃감은 자식들을 통해 대부분 팔려나간다.

병옥 어르신은 “애들이 회사에 선물용으로 가져가기도 하고, 맛을 본 사람들이 계속 우리 집 것만 찾는다”며 꽃감 품질에 자부심을 드러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빴던 감 농사철이 얼추 마무리되었지만, 아직 집 뒷마당에는 미처 수확하지 못한 감나무가 몇 그루 남았다. 남은 감을 수확하고, 11월 말 김장을 준비하는 동안 부부의 가을은 여전히 바쁘고 풍요로울 것이다. 



방앗간 30년에 유원지와 감나무까지... 씬 없이 골러간 삶

방앗간 세월 30년 흥영애 어르신

일 바빠 도시락 대신 떡 들려 보내며
연년생 오남매 키워
내년엔 고향 마을서 팔순잔치



마을에서 제일 늦게 감을 따다는 소식을 듣고 마을 안쪽 황골유원지로 향했다. 마당 한편 감잎이 바람에 훑날리는 자리, 흥영애(79) 어르신이 감나무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불쑥 찾아든 객에게 어르신은 따뜻한 미소로 자리를 내주셨다.

“여섯 남매 중 맏이였어. 맨날 동생들 보라고 학교 못 가게 했다니까. 공부가 하고 싶어서 나중엔 아기를 업고 학교에 가서 옆자리에 앉혀두고 공부했지. 그렇게 초등학교 졸업장을 겨우 땀어.” 영애 어르신은 자식들만큼은 어떻게든 가르쳐야겠다고 다짐했다. 연년생 다섯 남매 수업료를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마을 앞 장선천과 양촌을 오가며 잡은 다슬기를 팔아가면서까지 해냈다. 그는 “다 대학까지 보내서 가르친 게 큰 보람”이라고 웃었다.

가족의 생계를 위해 운주면소재지 농협 앞에서 30년 넘게 방앗간을 운영했다. 떡메가 부서질 정도로 일했고, 손에는 쌀가루가 굳은살처럼 남았다. 밥 먹을 틈이 없을 정도로 방앗간이 잘됐다. 기계가 멈추지 않는 새벽부터 쯔 바람떡을 도시락 대신으로 아이들 손에 들려 보내기도 했다. 영애 어르신은 “양촌고 다니던 셋째 딸은 친구들이 좋아한다고 꼬박 챙겨가는데, 둘째는 창피하다며 절대 안 가져갔다. 그마저도 지금 돌이켜보면 다 추억”이라고 회상했다. 몸이 아픈 이후로는 시동생에게 방앗간을 물려주고, 남편의 고향인 덕동과 가까운 원장선마을로 이사 왔다. 이곳에서 시부모, 여섯 시동생과 함께 대가족의 맘머



화단에서 활짝 웃고 있는 영애 어르신, 남원 광한루에서 찍은 부부 사진, 남편이 떠난 후 이제는 운영하지 않는 유원지 펜션

느리로 살았다.

어르신의 남편은 젊은 시절 광산에서 일한 영향으로 병을 얻었고, 8년 전 세상을 떠났다. 진폐로 오랫동안 고생하던 남편을 떠나보낸 뒤 함께 관리하던 유원지와 감나무를 홀로 감당할 수 없어 외지인에게 세를 주거나 팔았다. 예전처럼 일하지 않아도 어르신은 여전히 바쁜 사람이다. “난 집에 별로 안 있어. 여기저기 잘 돌아다니거든. 등산도 가고, 노래교실도 가고, 가까운 곳에 축제 열린다고 하면 거기도 가지. 저번 주엔 큰 딸이랑 손녀랑 익산 국화축제 다녀왔어.”

손녀가 챙겨온 귀여운 파자마를 맞춰 입고 찍은 사진을 자랑하는 어르신의 얼굴에 웃음꽃이 만연했다.

내년 팔순을 앞둔 어르신은 자식들과 함께 고향에서 잔치를 열 예정이다. “내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 힘들게 살았지만 덕분에 아이들도 잘 컸잖아.”

영애 어르신의 삶은 오래된 방앗간의 소리처럼, 멈춘 듯 이어지고 있다. 배움의 한을 희망으로 바꾸고, 눈물 속에서도 가족의 밥 짓던 손은 지금도 여전히 따뜻하다. ㉞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민과 소통

20년 지나 다시 이장 맡은 김기홍 이장

20년 전 처음 이장을 맡은 이후, 두 번째로 4년째 마을을 이끌고 있다. 주민과 행정을 잇는 다리 역할은 물론, 마을 안전과 생활 기반 개선까지 꼼꼼히 챙기는 ‘현장형 이장’으로, 마을 사람들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존재다.

현재 마을 현황에 대해 알려 달라

원장선마을에는 44세대 중 실제 거주하는 가구가 34가구 정도다. 외지에서 들어온 주민도 몇 가구 있지만, 대부분 원주민이다. 고령화가 진행돼 70~80대 어르신이 많고 마을 공동체를 이어가고 있다. 마을은 천등산 기슭 아래 자리해 공기가 맑고 경치가 깨끗하며 정씨와 백씨 집성촌이 형성돼 오랜 세월 역사를 이어왔다.

원장선마을 자랑을 해보자면 어떤 게 있나

공기가 좋아 살기 좋은건 물론, 마을에서 큰 자랑은 꽃감 농사다. 꽃감은 인터넷, 로컬, 농협, 직거래까지 다양하게 판매한다. 한동에는 만 개, 한 접에는 백 개 정도 담는다. 여름에는 유원지가 너덧 정도 있어 대둔산관광농원이나 동굴펜션 등을 찾는 사람이 많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화합과 상부상조 정신이 돋보인다. 복날, 칠석 때면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함께 밥을 나누고 돕는다.




마을의 큰 자랑거리인 꽃감 자부심이 대단한 김기홍 이장

옛날 모습과 비교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

과거에는 광산과 벼농사가 주요 소득이었지만, 지금은 감 농사가 중심이다. 예전에는 장례식을 집에서 치러서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상을 차리고 음식 준비와 집안 일을 도왔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마을 전체가 함께 움직이며, 늦은 밤까지 음식을 나누고 손님을 맞이하는데 힘을 모았다. 복날이나 칠석에는 주민들이 모여 함께 밥을 나누고, 회관에서 저녁도 함께 먹으며 서로를 챙긴다. 주민들의 화합과 상부상조 정신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장으로서 바람이나 소망이 있는지

동네에서 불편한 점이 있으면 행정과 소통해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 포장도로, 다리, 인도 등 주민 생활 편의를 위한 사업들이다. 무엇보다 주민들 간 화합과 상부상조 정신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가장 큰 바람이다. 이장으로서 헌신과 봉사하는 마음으로, 밤이고 낮이고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모든 일을 투명하게 보고한다. 카톡방도 운영해 어르신들에게 내용을 알려주고 반복해서 안내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흙 내음 맡으며 텃밭 가꾸는 가을 일상

대전에서 귀촌한 김경오 씨

마을회관 옆으로 굽은 길을 따라 들어가니 주홍빛 감나무들이 짙은 가을을 알린다. 그 감나무밭 사이, 정갈한 돌담으로 둘러싸인 텃밭에서 양파 모종을 심는 김경오(69) 씨를 만났다.

무릎을 굽혀 앉아 멀칭 비닐에 양파 모종을 심는 손놀림이 분주하다. 다른 집처럼 감나무를 많이 재배하지 않더라도 마늘과 양파, 생강 등을 심은 텃밭을 가꾸느라 바쁜 것은 마찬가지다. 경오 씨는 “이 시기에 양파를 심으면 내년 6월쯤 수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에서 전업주부로 살았던 경오 씨는 남편 박현구(74) 씨의 외갓집이 있던 원장선마을로 9년 전 함께 귀촌했다.

“고향이 논산 상월면인데, 논산에서도 한참 더 들어가야 나오는 시골이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 농사일 몇 번 거들어 본 적이 있으니까 아주 처음은 아니죠. 남편이 농사에 대해 잘 알기도 해요.”

양파를 다 심은 다음, 남편을 도와 깨를 털어야 한다는 그는 “자연환경이 좋고 깨끗한 공기를 누리니 건강에 참 좋은데, 눈 뜨자마자 할 일이 끝없이 이어지는 건 단점”이라고 솔직히 털어놓기도 했다. “농사일이 고되지만, 부부니까 남편이 하는 일 같이 해줘야지.”라며 웃는 경오 씨의 얼굴에 애정이 드러난다.

부부는 텃밭 농사 외에도 여름 한 철 사자봉 유원지를 운영하며 실 틈 없는 일상을 보낸다. 이제 곧 수확할 대봉감으로는 정성껏 감말랭이를 만들어 식구들과 나눌 생각이다. 고단함 속에서도 소박한 행복과 남편과의 정이 깃든 원장선마을의 가을 풍경이 정겨워 보인다.



양파 모종을 심고 있는 김경오 씨

미래를 바꾸는 힘, 책 읽기

완주군 도서관사업소 '취학 전 천 권 읽기' 프로그램


책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이 자라고, 마을이 함께 성장하는 '취학 전 천 권 읽기' 프로그램이 완주군 전역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완주군 도서관사업소가 2022년부터 운영하는 이 사업은 언어, 정서, 인지 발달의 핵심 시기인 만 3~5세 유아에게 양질의 독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루 한 권씩, 3년간 천 권의 책을 읽으며 책과 친해지고, 독서를 생활 속 습관으로 만드는 것이 목표다. 사업을 총괄하는 도서관사업소는 단계별 독서자료 개발과 독서키트 배부, 참여자 명단 관리, 찾아가는 독서서비스 기획·운영을 담당한다. 완주군립 공동도서관 5곳과 공립 작은도서관 8곳에서는 참여 신청을 받고, 추천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또 총 17개소의 어린이집·유치원에는 추천 도서를 담은 책 꾸러미를 직접 배달하고, 찾아가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해 아이들이 책과 더 가까이 지낼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인 협력 덕분에 지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독서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제12회 완주 북적북적 페스티벌' 속 '취학 전 천 권 읽기' 시상식이 마련되어 그간의 성과를 나누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천 권 완독을 이룬 아이들과 함께한 가족, 그리고 참여기관이 함께 축하받으며 한 해 동안의 노력을 기념했다.

특히 올해는 천 권을 완독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천사 프로젝트'도 진행됐다. '천사'는 '천 권 달성 꼬마 사서'의 줄임말로, '책과 지혜를 전하는 작은 천사'라는 의미를 담았다. 천 권 달성 이후 독서 공백을 방지하고 꾸준한 독서를 지향하기 위한 후속 프로그램이다. 꼬마 사서로 활동하는 아이들은 그림책 전시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 등 다양한 방식으로 책 읽기의 즐거움을 나누고 있다.

현재까지 완주군과 전주시 지역의 미취학 아동 2,000여 명이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51명의 어린이가 천 권 완독의 주인공이 됐다.

완주군 도서관사업소는 "앞으로도 도서관과 유아교육기관, 가정이 함께 만드는 독서 공동체를 확산해 나가며 '책 읽는 완주'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져갈 것"이라고 밝혔다. 

“책 읽기가 즐거운 일상이 됐죠”



백현진(백산어린이집 독서 프로그램 담당 교사)

Q. 백산어린이집이 '취학 전 천 권 읽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

A. 평소에도 아이들의 독서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 왔어요. 작년에 원장님을 통해 '천 권 읽기' 프로그램을 처음 알게 되었고, 도서관에서 신청 관련 안내를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특히 '책 읽는 습관이 평생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어요.

Q. 어린이집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고 계신가요? 현장의 실제 모습도 궁금합니다.

A. 매일 아침 자유선택활동 시간에 아이들이 스스로 책을 고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림책을 중심으로 구성하되, 아이들의 발달 수준에 맞춰 다양한 주제의 책을 제공하고 있어요. 또 매달 진행되는 주제별 놀이 수업과 연계해 관련 도서를 함께 읽고, 단순히 읽어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림 그리기나 이야기 확장 놀이로 이어가며 아이들이 책 내용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참여 연령은 주로 만 3세에서 5세까지이고, 나이에 따라 참여 방식이 조금 달라요. 7세 정도의 아이들은 글자를 익혀 스스로 책을 고르며 읽는 모습을 보이고, 5~6세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읽거나 교사와 함께 그림책 중심으로 활동합니다.

Q. 프로그램 참여 후 아이들의 변화나 긍정적 효과가 있었나요?

A. 처음에는 그림만 보는 데서 그쳤던 아이들이 점차 스스로 "제가 읽어볼게요."라며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으로 변해갔어요. 또 프로그램에 꾸준히 참여하면서 '독서가 즐겁다'는 경험이 쌓였고, 독서기록장을 함께 보며 "오늘은 몇 권을 읽었을까?"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집중력도 길어지고, 책 읽기가 일상의 즐거운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Q.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느낀 보람이나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A. 작년에는 '원에 숲'과 연계한 활동을 많이 했어요. 특히 학부모 참여수업 때는 한 코너에 '독서'를 주제로 아이들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자신이 만든 그림책을 부모님께 들려주는 행사를 열었는데, 그때 아이들이 정말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들이 책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부모님들도 "이런 프로그램이 참 의미 있네요."라며 함께 공감해 주셨



독서키트, 공공도서관 추천도서





백산어린이집의 '취학 전 천 권 읽기' 수상 어린이들. 왼쪽부터 강건우, 조예랑, 김슬찬, 송태빈, 조아랑 어린이

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이 프로그램이 참 잘하고 있구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진 목표가 있는데, 반 아이들 모두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예요. 현재는 다섯 명이 수상했는데, 앞으로도 19명 모두가 성취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Q. 운영하면서 아쉬웠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낀 부분은 무엇인가요?

A. 매달 도서관에서 어린이집으로 책을 충분히 보내주고 있지만, 연령별 발달 단계나 주제에 맞는 큐레이션이 좀 더 세분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3월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4월은 '봄과 동심' 처럼 월별 주제에 맞게 구성하면 아이들이 더 흥미롭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교사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독서지도 교육이나 좋은 사례를 공유해 주는 자료가 있다면 현장에서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Q. 앞으로 '취학 전 천 권 읽기' 프로그램이 지역사회와 어린이집에 어떤 의미로 이어질 바라시나요?

A.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어린이집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활동이 아니라, 지역 전체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상상력과 따뜻한 마음을 키워가길 바랍니다. 또 아이들과 가정,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백산어린이집도 앞으로 이 뜻깊은 여정을 계속 응원하겠습니다.



천사발대식, 천사들의 별별책, 천 권 읽는 문장공방 등 '취학 전 천 권 읽기' 프로그램들
사진제공_ 완주군 도서관사업소

고산미소시장 토요일장터&그림농부페스타

그림농부페스타

다양한 체험부스, 플리마켓, 그림농부 전시에
올해는 어린이 팽이배틀까지



완주군과 고산미소시장상인회가 마련한 고산미소시장 토요일장터가 11월 8일 고산미소시장에서 열렸다.

이날은 특히 문화공동체 '소리·점·빵'이 주최하고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가 후원한 '2025 그림농부 페스타'도 함께 진행돼 시장 일대가 예술과 로컬의 활기로 가득했다.

오전부터 고산미소시장 광장은 주민과 방문객들로 북적였다. 로컬 농산물 판매 부스, 플리마켓,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이 다채롭게 운영되며 활기를 더했다. 특히 어린이 팽이 배틀 대회에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몰려 큰 호응을 얻었고, 시장 곳곳에서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림농부 페스타 부스에서는 지역 문화예술공동체가 직접 제작한 작품 전시·판매가 이루어졌으며, 로컬푸드 시식, 페인팅 체험, 음식나눔, 앙상블누리의 축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져 주민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주민들은 농산물과 예술, 체험이 어우러진 행사장을 돌며 가을 주말의 여유를 만끽했다.

고산미소시장 토요일장터는 완주군이 주관하고 고산미소시장상인회가 주최하는 지역 상생 행사로, 주민과 상인, 방문객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시장을 목표로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형성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토요일마다 시장을 개방해 지역 로컬 제품과 농산물을 판매하고, 문화와 여가를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토요일장터는 하반기 일정으로 진행된 행사로, 지역 여건에 따라 정기적으로 또는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2025 그림농부 페스타 축하공연 '앙상블 누리'의 무대

현악5중주 '앙상블 누리'



버블공연

플리마켓



팽이배틀



2025 사회적경제 종사자 아카데미

완주 사회적경제의 깊은 협동을 위한 학습장

글·사진 황재근(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역량강화사업단 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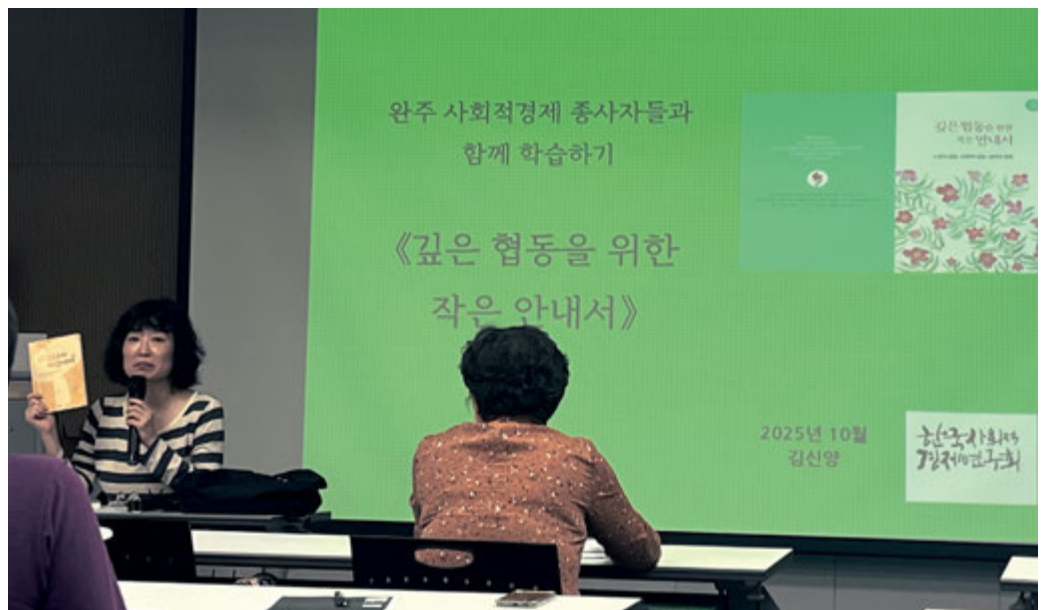
완주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임직원과 조합원들을 위한 '2025 사회적경제 종사자 아카데미'가 지난 10월 15일부터 11월 26일까지 매주 수요일 진행 중이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부터, 글쓰기, 영상촬영, AI 활용 등의 실무과정,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분석까지 다양한 분야의 강의를 이어진다.

10월 15일 열린 첫 번째 강의는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의 저자인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과의 북토크였다. '협동조합 덕후'를 자처하는 김 회장은 협동조합의 역사를 바탕으로 한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강조했다. 협동조합의 정의, 가치, 원칙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협동조합을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게 김 회장의 우려였다. 수많은 협동조합의 실패 사례들 중 상당수가 '협동조합에 대한 무지'가 원인이라는 것. 그는 협동조합에 대한 학습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협동조합이 세 가지 협동으로 이뤄져 있다고 설명했다. 자본의 협동, 노동의 협동, 생각의 협동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의 협동이 원활하게 돌아갈 때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2강에서는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연대경제까지'라는 제목으로 최근 '사회적경제'라는 용어를 '사회연대경제'로 바꾸고자 하는 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사회적경제의 역사와 국가별 사용례, 포괄하는 범위 등을 비교하여 둘 사이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3강과 4강에서는 휴대폰을 사용한 쇼츠 영상 만들기 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업무용 글쓰기에 대한 교육이 이어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완주군이 주최·주관하고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협력하여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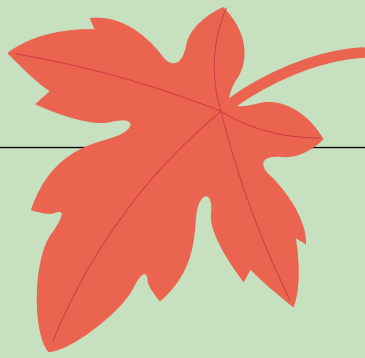
「깊은 협동을 위한 작은 안내서」의 저자인 김신양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회장의 북토크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적 이해부터
글쓰기, 영상촬영, AI활용 등
실무과정에
향후 정책 방향 분석까지



중이다.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의 실무력을 높이는 것도 목적이지만,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서로 교류하게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11월 26일에 15시부터 열리는 7강 '사회적경제 정세분석'에서는 문보경 사회적경제연구소 부소장이 강사를 맡아, 새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비롯

해, 민간에서의 주요 활동들도 소개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임직원, 조합원(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전반적인 흐름도 알아보고, 다른 조직의 사람들도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3회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 현장

가을날 평온하게... 건강 치유 행복 만끽해요

건강, 치유, 행복을 주제로 열린 완주군 대표 힐링 축제 '제3회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가 11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전북도립미술관 야외광장 일원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축제는 웰니스를 주제로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웰스 릴레이 게임, 노르딕 워킹 체험, 근력 UP, 건강 체험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진행돼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극단 창연이 선보인 <흔들리지 마, 귀동아> 아동극은 '바른 먹거리'를 주제로 어린이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생동감 있는 무대를 통해 재미와 교훈을 동시에 전달하며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이외에도 아이 동반 나들이객을 위한 마술쇼 및 물고기 낚시, 숲은 동물 찾기 등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됐다. 첫째 날 개막식 메인 무대에서는 가수 강허달림과 리치맨과 그루브 나이스가 가을의 낭만을 더하는 공연을 선보였다. 둘째 날에 열린 가을빛 Music Party에서는 브라스밴드 ZIP4(집사)와 감성 보컬 오지은이 감미로운 무대로 축제 분위기를 이어가며 관람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외에도 지역 주민 공연이 함께 어우러져 호응을 얻었다.





Visual Voices_ 예술로 평화를 말하다

사진 영상 그림으로 예술공간을 찾은 평화의 씨앗

글·사진_윤혜진PM



위 부터_ 동화밴드의 축하공연 무대, 조한결 작가와의 대화

지난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완주문화재단 예술공간에서는 평화에 대한 외침, 평화에 대한 소망을 담은 전시가 진행되었습니다. 서울 로프트그라운드 갤러리에서 시작된 전시는 박종철센터 외에도 서울과 파주 곳곳의 마을책방에서 전시 및 공감토크를 진행하고 올해의 마지막 전시가 완주에서 펼쳐졌습니다. 이 전시는 기획자와 작가가 난민예술가 프로젝트를 통해 알게 된 인연을 시작으로 보다 지속적이고 연대하는 활동을 표현하고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2024년 전시로 끝났을 수도 있었지만 참여작가와 연계 커뮤니티의 자발적 의지로 올해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그림, 설치 등 다양한 예술 장르의 작가가 참여하였으며 각자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해석한 평화에 대한 메시지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평화에 대한 차이를 마주하다

10월 25일 오전 11시보다 조금 늦게 시작된 전시에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난민 출신인 살레 엘란티시가 찾아와 실제 팔레스타인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레에게 평화는 무엇인지, 어쩌면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할 전쟁이라는 글 속에 담긴 실상을 들려주었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악된 희생자 숫자 6만 5천여 명. 폭격현장,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실로 희생된 사람은 그 숫자를 넘고도 남을 것이었습니다. 비단 군인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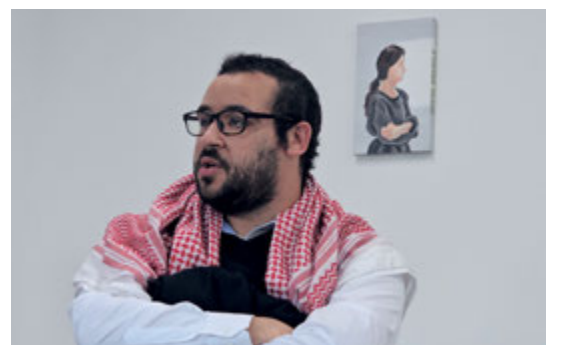
예술로 평화를 말하다 비주얼보이스 전시 이미지

관계자들만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구호활동을 위해 참여한 사람도, 기자도 그리고 가장 슬픈 사실은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전시를 준비할 단계에선 '평화'를 '평온', '평안'이라는 범위 안에서 바라보았지만 살레의 실상을 전해듣고 보니 그들에게 '평화'는 '생존'이었습니다. 같은 글자를 읽고 다른 온도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1시간 동안 덩덤히 이야기를 전하던 살레가 괜찬은지 걱정되었습니다. 살레 본인도 전쟁으로 집을 잃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28살 청년이었습니다. 살레는 본인이 한국에 있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현실을 알려야 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함께 이 이야기를 들은 공연 연주자는 연주 중에 눈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을 일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공감했을 것입니다.

예술로 평화를 말하기 위하여

올해의 전시는 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작품도 보태어졌습니다. 동양화 및 일러스트레이터로



가자지구 난민출신 살레 엘란티시

활동하고 있는 용진숙 작가, 놀이작가 및 시나리오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박성현 작가 외에 <어느날 까지를 보았는데> 연출인 유희영 예술감독도 그림으로 힘을 보태어주었습니다. 내년에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이야기를 더하며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재구성하여 다시 완주를 찾을 예정입니다. 내년을 기약하며, 함께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모의 날(모두 모여라)’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의 모습

완주자연지킴이연대 ‘모모의 날’

연대의 힘으로 신흥계곡 지킴이 6년

완주자연지킴이연대는 11월 8일 경천 신흥계곡 아우르하우스에서 ‘모모의 날(모두 모여라)’ 특별한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완주자연지킴이연대가 신흥계곡 지키기 활동 6년차를 맞아 회원들이 그동안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활동을 약속한 연대의 힘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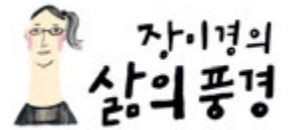
이른 아침 손영란 님의 녹차와 보이차로 시작한 웰컴티는 방문객을 따뜻하게 맞이해줬고, 생태적 삶과 가원가꾸기 운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황대권 님의 강연은 회원들에게 자연과 생태적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일깨워주는 시간이 되었다.

이어진 서도영 님의 춤 공연과 남채희 님의 평화의 춤은 ‘모모의 날’을 훨씬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었다. 씨앗받는 농부들의 농산물과 평화밥상은 참석자들의 허기를 달래주었다.





누렁아 잘 잤냐?
누렁아 밥 먹자!
혼자 힘으로
50마리의 소를
키우는 법



고산 조계순 이야기

아침저녁으로 추워진 날씨지만, 새벽 5시에 독촉골 다리 너머에 있는 소막에 나가 소들을 먹이고 아침을 먹고 나면 다시 들로 나가 농사를 짓는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지난 20여 년 동안 그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렇게 소들을 돌보는 동안 다섯 마리였던 소는 어느덧 50마리로 불어났다. 둘이서 30마리를 키우는 것도 벅찬 일을 칠순이 훌쩍 넘은 작고 가녀린 조계순 어머니(75)는 혼자서 어떻게 그 대단한 일을 해낼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다.

“나는 소도 키우고 농사도 열 마지기 쳐요. 고추도 좀 하고 벼농사 짓고 그러지. 딸 넷에 아들 하나 됐는데, 일 년 내 딸들 먹을 것 다 대주고 나 혼자 이 일을 다 해. 남편은 20년 전에 먼저 하늘 가고 그 뒤로 내가 소 키우고 농사도 혼자 지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대단하다고 그래. 내 나이 54살에 아저씨가 돌아가시고 큰 아들이 1년 뒤에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대학 원서 넣으러 가는 길에 그렇게 됐어. 그때만 해도 집에 소가 네다섯 마리 있었는데 돈도 없지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살까 막막하더라고. 그때부터 땅만 바라보고 하늘만 바라보고 악을 쓰고 살았어. 지금 사는 집은 삼사십 년 가까이 되야. 나는 경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 24살에 고산으로 시집왔어. 아저씨는 나보다 8년 위였고. 나 태어난 동네도 참 가난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집에 시집와서 나 고생 많이 했어.”

경천에서 태어나고 자란 조계순 어머니는 스물네 살에 고산으로 시집왔다. 고향도 가난했지만, 시댁 형편 또한 다를 바 없이 궁핍했다. 처음 시집와서는 고산성당 밑에 집을 얻어 살다 먹고 살기 위해 공장도 다니고 식당 일도 하고 아저씨는 청소부 일을 하며 조금씩 돈을 모아 지금 살고있는 읍내에 제법 큰 집을 지었다고 한다. 그렇게 좋은 집을 지었는데 아저씨는 그 집에서 10년도 못살고 돌아가셨다. 남편 보내고 그 이듬해 아들을 하늘로 보내고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소를 키워서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땅을 사고 그 땅에 소막을 지어서 지금 이렇게 50마리의 소들이 있는 커다란 소막이 만들어지게 됐다.

“그때는 어떻게 살까 막막했어. 단돈 백만 원도



소들에게 사료를 줄 때마다 “누렁아, 밥 먹자” 하면서 말을 건넨다는 조계순 어르신. 그래서인지 소들은 동네에서는 물론이요, 축협이나 방역본부에서도 소문난 순둥이들이란다.

없어서 힘들었어. 지금은 빗도 다 갓고 부족한 거 없어. 나 혼자 일해서 이 정도면 성공했다고 생각해. 남자들도 소 키워서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어. 내가 소를 잘 키우는 거 같아. 송아지 낳을 때도 죽이질 않아. 완주군에서 소문났어. 축협에서도 소문나고. 여자가 이 나이 먹도록 소를 키우는 사람이 나밖에 없을 거야. 옛날에 친정아버지가 소를 한두 마리 키웠어. 소 키워서 남의 논밭에 소로 쟁기질해주고 품삯으로 가져다 먹고 그랬거든. 그때 나 어렸을 때 내가 쌀겨 가져다가 소 먹이고 풀 베다가 소 먹이고 그랬거든. 강변에 소를 묶어 놓고 풀 뜯어먹으라고 하고 저녁에는 끌고 집으로 오고 그랬지. 옆에서 새끼 낳는 것도 보고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소 키우고 보살피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지. 소를 보면 참 예뻐. 어렸을 때 소랑 같이 다니면서 말도 걸고 그랬어. 나는 지금도 우리 소들한테 말하고 그래.”

조계순 어머니는 아침에 소막에 오면 ‘아이고 잘 잤냐’ 인사하고 밥 달라고 올면 ‘누렁아 밥 먹자’ 하면서 말을 건다고 한다. 그렇게 아침저녁으로 주인과 말을 하며 지내는 소들은 유난히 순해서 축협 사람들도, 방역본부 사람들도 ‘아이고 대한

민국에서 이렇게 순한 소는 아줌마 소밖에 없네 요’라고 한다고 했다.

“왜 이렇게 소가 순하냐고 소문났어. 나는 소한테 말도 걸어주고 놀아주거든. 잘 잤냐, 기다려라, 밥 줄게, 기다리라고 하면 진짜 기다려. 소들이. 다정하게 대해주니까. 소들이 새끼날 때 예민해지거든. 소 키우는 사람들 새끼 받을 때 한두 번 정도는 발로 맞아본 경험들이 있을 거야.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없어. 새끼 받다가 갈비뼈 부러진 사람도 있는데 나는 여태껏 소한테 맞아본 적이 없어. 나는 소들하고 이야기하고 놀아줘. 막 태어난 송아지들 내가 닦아주고 그러면 어미 소가 가만히 보고만 있지 나를 절대 건드리지 않아. 지 새끼 건드린다고 막 달려들 법도 한데 소들이 나를 알아보지. 수의사가 바빠서 못 올 때는 막내 아들 불러서 내가 여러 번 송아지도 받았지. 그것도 기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야. 아픈 송아지들도 내가 많이 살렸어. 우리 집 소들은 전부 누렁이야. 누렁아 잘 잤어? 누렁아! 누렁아! 부르지. 나는 소에게 다정한 사람이야. 나를 아는 사람들도 내가 소 키운다고 하니 뭐 너댓 마리 먹이는 줄 알았디야. 그런데 우리 소막 와보고 다들 깜짝 놀라. 한 오십 마리쯤 돼.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이것은 기업이야. 대기업이지. 어떤 사람은 내외간에 30마리 키우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혼자 이걸 다하잖아. 나는 일이 재밌어. 하여간 무조건 재밌어. 아침에 눈 뜨면 일할 생각에 신이 나.”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 좋다고 하셨다. 밭에 나가 고추를 따는 일도 재미있고, 나락농사를 짓는 일도 즐겁고, 소막에서 소를 먹이는 일도 좋다고 했다. 해가 떠 있는 동안 밖에서 일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고 말씀하셨다. 지금까지 아프지 않고 건강

하게 살아온 것도 부지런히 몸을 움직인 덕분이 라고 믿고 있었다. 자신의 하루 일과를 이야기 하는 동안 어머니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조계순 어머니의 어린 시절 꿈이 무엇이었을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었을까 궁금해졌다.

“우리 어린 시절에는 꿈 이런 거 없었어. 굶지 않고 사는 것 그런 게 꿈이었을까. 일할 수 있는 거, 일해서 밥 먹고 사는 것이 최고였지. 그래도 뭐라고 할까, 이놈의 세상 내가 시집가서 잘 살아가지고 그냥 우리 친정에 쌀 좀 몽땅 쥐야겠다 결심했어. 그것이 나의 꿈이었다고 할까. 그런데 실현되었지. 우리 친정어머니가 죽기 전까지 나한테 쌀을 얻어먹고 가셨어. 내가 어머니 창고에 쌀 떨어질 일 없도록 쟁여놔. 뭐 공부해서 성공해야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어. 그저 흰 쌀밥 실컷 먹는 것, 그것뿐이었어.”

그는 배고픈 존재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마을 주변의 길고양이와 길강아지들을 위해 늘 깨끗한 물과 밥을 놓아둔다. 산책하다 발견한 그릇들을 보며 어느 고운 사람이 이렇게 정성껏 챙겨두었을까 궁금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조계순 어머니였다.

남편과 아들을 차례로 떠나보낸 뒤, 그는 오로지 소를 먹이고 송아지를 받아내며 하나둘 농장을 일궈갔다. 정성으로 키운 소들이 늘어나자, 어느새 두 채의 든든한 소막이 들어섰다. 그 위에는 큼지막한 간판 하나가 걸려 있다.

‘계수나무 농장. 대표 조계순’ 자신의 이름 세 글자를 당당히 새긴 간판이었다.

슬픔에 잠식되지 않고 끝내 스스로 일어서 이뤄낸, 그의 단단한 삶의 증거였다.

글·사진=장미경 장미경은 다큐멘터리 감독이자 고산미소시장에서 공동체가 만든 제품을 파는 편집매장 흥흥을 운영한다.

완주 여기로 모이자!



수북하게 쌓인 은행잎 사이로 바람이 스며드는 11월. 건강에 유의하며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여라!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목요 영화데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방앗간으로 모여라! 11월 상영작은 '전우치', '굿뉴스', '더웨이'이다.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1월 13일, 20일, 27일 (매주 목) 오후 2시

【저속노화 밥상】

건강하고 맛있는 제철 식재료를 활용한 저속 노화밥상으로 건강한 끼를 채운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1월 12일, 19일, 26일 (매주 수) 오후 6시

모집인원: 4명 *선착순

참가비: 회당 5,000원

【한달 한권 독서모임】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 하자!

진행정보: 11월 격주 금요일 오후 2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김법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

삼례 청년문화공간 '완충지대'

【회화 그림 소모임】

자신만의 그림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시간.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월 1회 진행



【일본어 회화 모임】

일본어로 자유롭게 대화하며 즐겁게 배우는 시간이다. 나카무라 미코 선생님과 함께하는 일본어 회화 모임에 관심 있는 사람은 서둘러 참여하자!

진행정보: 11월 12일, 19일, 26일 (매주 수) 오후 6시 30분

주소: 완주군 삼례읍 삼례로 382 (신아빌딩 4층)

문의: 070-4113-777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wanchungjidae

참가신청: 인스타그램 메시지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가을의 마지막, 겨울의 시작 11월. 시골극장 공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공씨네 11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1월 15일 (토) 오후 2시	오지: 사라진 숲을 찾아서	애니	전체 관람가
11월 22일 (토) 오후 2시	오늘부터 댄싱퀸	드라마	전체 관람가
11월 29일 (토) 오후 2시	여덟 개의 산	드라마	12세 관람가

* 영화를 깊이 있게 <저녁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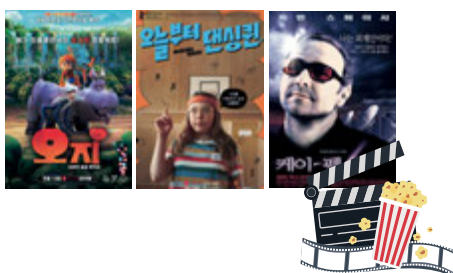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11월 25일 (화) 오후 7시	케이 팩스	SF, 드라마	12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양육자를 위한 디지털 시민의식 특강

완주미디어센터에서 디지털 세상 속 자녀와 함께 건강한 미디어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시간이다. 이번 특강에서는 양육자가 알아야 할 디지털 시민의식과 올바른 미디어 사용 습관에 대해 함께 나누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11월 19일(수), 11월 21일(금) / 오후 6시 30분~ 8시 30분

문의: 070-4218-4313 완주미디어센터 사업팀

2025올해의 소셜굿즈 추천 공모전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5 올해의 소셜굿즈 추천 공모전'을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완주지역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한 것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 모두 참여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뿐 아니라 사회적가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도 추천 가능하며, 자기 단체를 직접 추천하는 것도 가능하다. 추천된 단체는 심사를 거쳐 오는 12월 11일(목) 저녁 6시에 열리는 '완사넷 송년의 밤'에서 시상할 예정이다. 공모기간은 11월 25일 (화)까지이며, 완사넷 공식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wanjucoop@naver.com로 제출하거나 완주경제센터 2층 212호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3-90-5050, 5054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공감 토크 콘서트'

2025 완주무장애예술축제 '서로'의 특별 프로그램인 '함께여서 가능한 공감 토크 콘서트'가 11월 15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 30분까지 열린다. 이번 행사는 비장애 형제의 시선으로 본 삶과 사랑을 주제로, 장애와 비장애를 넘어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하는자리가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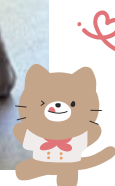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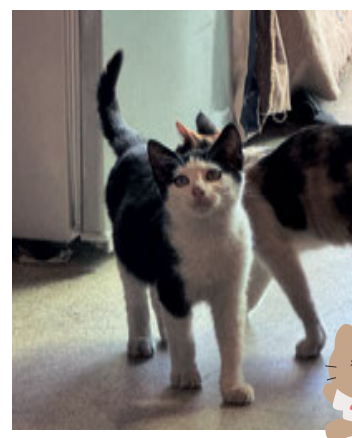
토크콘서트는 복합문화지구 누에 1층 실마리카페에서 진행되며, MC 권주리의 진행 아래 영화감독 양준서, 특수교사 김신영, 크리에이터 정은백이 출연해 각자의 경험을 나눈다. 또한 양준호의 우크렐레 공연이 더해져 따뜻한 분위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누구나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완주문화재단 문화가치확산팀 063-262-3955 으로 하면 된다.

길냥이 '홍순이' 가족을 기다립니다

고산미소시장 길목에서 태어난 길냥이 세 마리 중, 5개월 된 수컷 고양이 '홍순이'가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다. 홍순이는 상점이자 공유공간, 편집숍이자 사랑방인 '널리널리홍홍'에서 임시보호 중이다. 고산촌 삼촌들과 홍홍지기가 함께 돌보며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활발하고 사람을 잘 따르는 홍순이는 처음 보는 손님 앞에서도 겁내지 않는 성격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꼬리를 흔들며 가게를 찾는 손님 곁을 맴돈다.

입양 문의는 일요일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널리널리홍홍에 직접 방문하면 된다. 고양이 '홍순이'의 따뜻한 겨울이 새로운 가족과 함께 시작되길 기다린다.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김민영 씀 | 노르웨이숲 | 296쪽 | 2025 | 18,500원

내 삶을 위한 독서 모임



달리기(러닝) 열풍에 다들 뛰다. 유튜브, 텔레비전, 지나가는 만경강변에도 뛰는 사람들이 곧잘 보인다. 꾸준한 자기관리, 건강한 신체를 향한 열망이 사람들을 달리게 한다. 마음은 어떨까? 사유는?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나 명상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겠지만 그중 독서가 운동하는 마음과 가장 비슷하지 않을까? “하면 좋지”, “해야지, 해야지” 하면서 쉽지 않은 마음 말이다.

물론 책을 좋아해서 책을 만들다 책방까지 차린 나로서 독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일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에 책 한 권을 온전히 읽어내기 쉽지 않다. 이젠 개인의 역량 차이로 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 듯하다. 누구나 몰입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다. 아, 스마트폰 빠고. 정말 시간 ‘순삭’이다. 요물. 전력질주를 해서 나의 심폐지구력을 체크하듯이 나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 않고 책을 몇 장까지 읽어낼 수 있는지 확인하며 나름대로 ‘읽는 훈련’을 한다. 쉽지 않다.

그래서인지 예전엔 좋은 책을 추천하는 기준이 나름 있었는데, 요즘은 책 추천해달라고 하면 책장이 잘 넘어가는 책을 골라 읽어라고 한다. 재밌으면 장땡. 두께도 내용도 상관없고 잘 넘어갈 수 있는 책 한 권을 다 읽어내는 경험이 중요하다. 처음에 걷기부터 시작하는 것처럼, 부담이 없어야 달리는 일이 재밌고 습관이 되듯이 독서 역시 재밌고 내 일상에 도움이 되어야 책을 읽는 일이 생활의 일부가 된다.

그럼에도 꾸준히 하기 어렵다면, 헬스장을 끊을 수밖에 없다. 강제로 나를 그 자리에 가져다 놓을 수밖에. 책을 읽는 이들에게 독서 모임이 헬스장 아닐까. 혼자서는 한 권도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 체력이 함께 읽으면 어찌저찌 한두 권 읽어지고, 갈을 때도 다를 때도 있는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다 보면 책 한 권을 여러 번 읽는 기분이 들기도 한다. 독서 모임은 책을 매개로 읽고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전달하는 힘을 기르는 시간이다. 정말 대단해. 흔히 영화를 종합예술이라고 하는데, 독서 모임도 이렇게 말하고 보니 종합훈련이다.

이미 독서 체력이 만렘인 사람들도 고충은 있다. 수다로 채워지는 오래된 독서 모임 극복하기,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닌 검색 정보들만 나열하는 사람 등 독서 모임을 둘러싼 천태만상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내 삶을 위한 독서 모임>에 나와 있다. 나아가 20년 동안 독서 모임을 해온 저자가 추천하는 도서 목록을 따라 읽어가기만 해도 조금은 든든한 마음으로 한 걸음을 뚝 수 있을 것이다. 가까운 동네책방 문을 두드려도 좋고, 마음 편한 이들과 작은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림보책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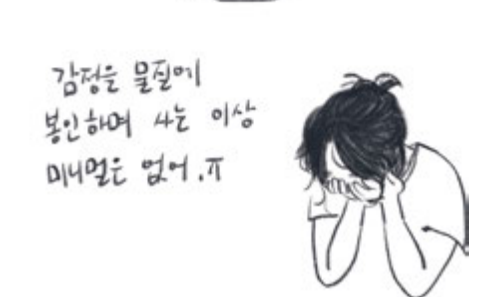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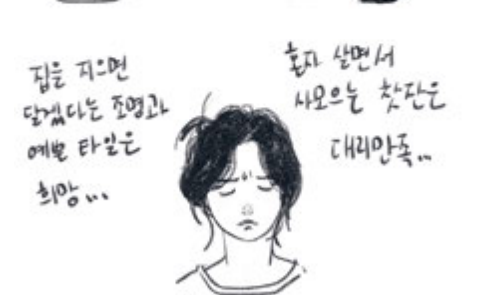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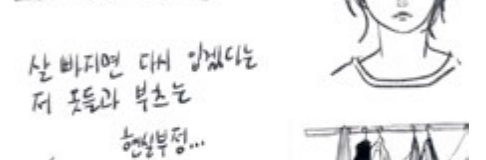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6 2층

☎ 063) 717-70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설레

#77 봉인술사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완주군가족센터
직원 김요셉 씨 득녀 

완주군가족센터의 직원 김요셉 씨가 11월 10일 오전 9시 8분, 2.82kg의 건강한 딸을 품에 안았다.

아기의 이름은 '김도아'로, 道(길 도)는 길과 진리, 올바른 삶을 의미하고 雅(우아할 아)는 고상하고 품격 있다는 뜻을 담고 있다. 부모는 “올바른 길을 가는 고운 마음의 아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말했다.

두 사람 모두 고산에서 자라 현재 삼례에 거주하는 부부는 태몽 이야기도 특별했다. 부부의 각각 다른 친구가 우연히 같은 내용의 태몽을 꿴데, 그 꿈속에는 푸른 구렁이가 집 안에 딱리를 들고 있었다고 한다. 푸른 뱀의 해와도 맞물린 이 꿈이 태몽이라는 확신이 들었고, 실제로 꿈 이야기를 나눈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다.

태몽에서 인상 깊었던 '딱리(옛말 또아리)'라는 단어를 떠올리며 아이의 태명을 '또아'로 지었고, 그 의미를 이어받아 이름도 '도아'로 정하게 됐다고 전했다.

부부는 “도아가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행복을 전하고 다른 이를 도울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지닌 아이로 자라나길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출산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양생원, 명몽이 검제, 꼬꼬닭 함께 좌충우돌 우당탕탕 원주살이 11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고요한 인간다움의 맑은 울림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23)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



QR을 스캔해보세요.
음악이 재생됩니다.

세상에는 마음을 홀뜨리는 음악이 있는가 하면, 마음을 정돈해 주는 음악이 있습니다. 후자를 흔히 '다스림의 음악'이라 칭합니다. 그것은 귀를 사로잡기보다는 내면의 숨결을 고요히 가라앉히는 음악입니다. 에릭 사티의 <짐노페디 1번>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습니다.

파리 몽마르트 언덕의 가난한 피아니스트. 사티는 늘 같은 옷을 입고,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방 안에는 낡은 피아노 한 대와 포장을 뜯지 않은 우산들이 즐지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교향악 대신 그는 삶의 작은 숨소리를 악보에 옮겼습니다. 누구보다 자유로웠으면서도, 누구보다 외로웠던 예술가. 그의 손끝에서 태어난 '짐노페디'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는 고요의 음악이었습니다.

<짐노페디 1번>은 느린 박자의 왈츠로 시작합니다. 왼손은 단조로운 리듬을 반복하며 바닥을 다지고, 오른손은 몇 개의 화음을 조심스레 올려놓습니다. 마치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먼지와 빛이 함께 일어나는 오후의 골목 같습니다. 그 단순함 속에는 묘한 깊이가 있습니다. 음과 음 사이에 남겨진 여백이 바로 이 곡의 영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티는 화려한 장식과 감정의 폭발을 모두 털어내고, 인간의 가장 순한 숨결만을 남겼습니다.

이 곡을 듣고 있으면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합니다. 음악이 흐르는 동안엔 과거의 기억도, 미래의 불안도 개입할 틈이 없습니다. 남는 것은 단지 지금 이 순간 '존재한다'는 감각뿐입니다. 사

티는 말없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조용히 살아 있는가요?"

이 곡은 단순하지만 결코 단조롭지는 않습니다. 마치 깊은 연못이 처음엔 잔잔해 보이지만 그 밑에는 오래된 시간의 층이 쌓여 있는 것처럼, 짧은 선율 속에도 인생의 부침이 숨어 있습니다. 고통이 녹아 있지만 그것은 절제되어 있습니다. "느리고 고통스럽게"(Lent et douloureux)라는 악보의 지시처럼 사티는 고통조차 다스립니다. 그것을 폭발시키지 않고 내면의 리듬으로 가라앉힙니다.

사티는 흔히 '가구음악'을 표방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음악이 인간의 감정을 휘어잡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조용히 방안의 공기를 대우는 난로, 비오는 날 창문에 닿는 빗방울, 사람들이 잠든 후에도 홀로 깨어있는 의자와 같은 것이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음악은 그토록 듣지 말라던 그 말과 달리 오늘날 전 세계의 카페와 영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가장 자주 울립니다. 우리나라의 저명한 침대 광고의 배경음악으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고요한 인간다움을 그리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짐노페디 1번>은 마음의 창문을 열고 앉아, 스

스로의 호흡을 다시 헤아리게 합니다. 그 안에는 승리나 패배의 욕망과 분노 혹은 좌절이 스며들 수 없습니다. 다만 살아 있음의 가볍고도 진중한 온기가 있을 뿐입니다. 사티는 삶을 해석하지 않았으며 그저 그것을 있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 다스림의 한 길일 것입니다.

'짐노페디'라는 제목은 그리스 스파르타에서 벌어진 소년들의 제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소년들이 옷을 벗고 신 앞에서 격렬하게 춤을 추던 의식, 하지만 사티가 취한 것은 그 격한 육체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 안에 흐르던 고요한 정신의 리듬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곡을 들을 때마다 느끼게 되는 평화는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과 자신을 조용히 조율하는 인간다운 맑은 울림입니다. 삶이 너무 빠르고 복잡하게 변해갈수록 사티의 음악은 우리를 본래의 속도로 되돌려 줍니다. 느리고 고요하게 그러나 좀 더 또렷하게!

가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벌써 겨울이 왔다고 해야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지난날을 뒤돌아보게 되는 계절입니다. 어처구니없는 일도 많았고 아찔한 순간도 적지 않았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히기도 했고 분노에 치를 떨기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다 지나갑니다. 문제는 그런 것들에 크게 상처받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다스림의 음악에 자주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겨울을 맞이해보는 것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케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원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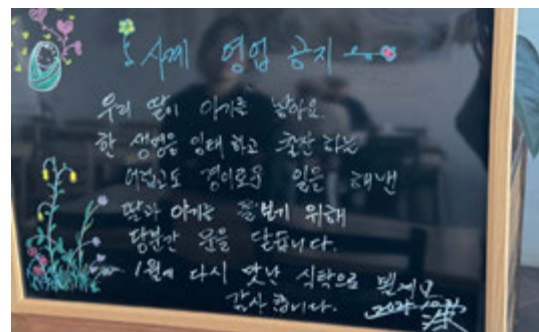
고산미소시장 식당 사계 "출산한 딸과 아기 돌보려 임시휴업"

고산미소시장 내에 있는 로컬 밥집 '사계'가 11월 10일부터 임시휴업에 들어갔다.

'사계'의 오혜수 사장 부부는 "딸이 한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출산의 어려움과 경이로움을 경험했다"며, "딸과 아기를 돌보기 위해 잠시 가게 문을 닫는다"며 "내년 1월 12일에 다시 맛난 식탁으로 찾아뵐 것"이

라는 따뜻한 인사도 함께 남겼다.

한편, '사계'는 감성적인 공간 분위기, 건강한 메뉴 구성, 그리고 지역 농산물과의 협업으로 완주와 인근 주민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곳이다. 대표 메뉴로는 부드러운 카레정식과 데리야끼 볶음밥, 직접 만든 유자소스 샐러드 등이 꼽힌다.



한바탕 씻김굿 같은

김영혜의 **영화산책**
(10)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



감독 김오안/ 브리짓 부이오, 2021, 한국

커다란 캔버스 위에 영롱한 물방울이 맺혀 있다. 벽에 수직으로 걸려 있는데도 신기하게 물방울이 흐르지 않는다. 물방울이 맞나 만져보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관람객들은 캔버스 옆으로 가서 비스듬히 쳐다본다. 볼록한 물방울을 기대하면서. 그러나 옆에서 바라본 캔버스는 평평할 뿐이다.

김창열 화백은 40대 이후 평생 물방울만을 그렸다.

“화난 물방울, 사라지는 물방울, 감상적인 물방울, 전진해오는 물방울, 불타는 물방울...”

화가는 별로 말이 없다. 손자, 손녀에게는 다정하고 자애롭게 말을 걸고 안아주고 하지만 주로 깊은 침묵 속에 잠겨 있다. 아들 김오안은 아버지의 깊은 침묵이 버겁다. 아들은 아버지의 침묵의 근원을 알아보고자 한다. 다큐멘터리 <물방울을 그리는 남자>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이다. 평안남도의 한 시골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창열은 해방공간의 혼돈 속에서 15세의 나이에

홀로 삼팔선을 넘어 남한으로 내려온다.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걸어 걸어 삼팔선에 다다르니 러시아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그는 처음으로 기도를 한다. “신이여, 만일 당신이 존재한다면 나를 도와주세요.”

한국전쟁이 터지자 국군에 징집된 그는 동료들의 처참한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도한다. 미아리 고개를 넘을 때 탱크에 짓이겨진 젊은 장병들의 머리가 “바람빠진 럭비공”처럼 길가에 지천으로

뒹굴고 있었다.

그는 그런 상흔을 안고 그림을 그리기 위해 뉴욕으로 가는데, 거기서는 아무도 저 변방의 나라에서 벌어진 비참한 일들을 개의치않았다. 팝아트가 지배한 뉴욕의 거리에서 김창열은 “비명”을 그린다. 다시 파리로 건너간 그는 가난하고 고독했다. 어느날 아침, 다시 쓰려고 물을 뿌려놓은 캔버스 위로 아침 햇살이 비치자 영롱한 물방울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날 이후로 그는 평생 물방울만 그리게 된다. 그는 그것을 ‘진혼곡’이라고 부른다.

“물방울을 그리는 건 모든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다. 모든 악과 불안을 물로 지우는 거다. 내게 그림은 죽은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행위였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고요한 평온이 내려앉는다. 영화 내내 지속되는 한 노인의 완고한 침묵과 그것을 묵묵히 받쳐주는 탁월한 사운드 디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리라. 한바탕 씻김굿 같은 영화다.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마을소식

고산 삼우초 아이들이 ‘빛과 몸짓으로 표현한 마음’

마암댄스 춤·감성프로젝트 성과발표회

11월 4일, 완주 고산 삼우초등학교 강당에서 마암댄스 춤·감성프로젝트 ‘춤추는 아이들’의 성과발표회가 열렸다.

‘모두의 놀이터’ 초등학생 11명이 무대에 올라 지난 몇 달간 갈고닦은 춤과 감성 표현을 선보였다. 이번 참여한 아이들 대부분이 삼우초 학생으로, 모두의 놀이터에서 시작된 프로그램이 삼우초로 장소를 옮겨 진행됐다.

마암댄스는 음악의 리듬에 따라 자유롭게 움직이며 자신을 표현하는 창의적 신체활동으로, 틀에 얽매이지 않고 감정과 생각을 몸짓으로 풀어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날 공연에서도 아이들은 정해진 동작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몸으로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어두운 실내에서 음악이 시작되자 손전등을 들고 등장한 아이들은 서로의 시선을 마주하며 천천히 움직였다. 몸의 방향이 바뀔 때마다 손끝에서 흐르는 긴 장감이 객석까지 전해졌다. 관객석에서는 숨죽인 응원이 이어졌고, 곧이어 아이들의 밝은 미소와 경쾌한 발놀림이 강당 가득 퍼졌다.

한 아이는 무대 한쪽에서 천천히 돌며 손을 하늘로 뻗었고, 또 다른 아이는 리듬에 맞춰 바닥을 툭툭 두드리며 자신만의 이야기를 풀어냈다. 모두의 움직임이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자 마치 그림 한 장면처럼 조화로운 분위기가 연출됐다.

공연 후반부에는 풍선을 이용한 퍼포먼스도 펼쳐졌다. 짝을 지어 풍선이 바닥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즉흥적인 동작이 나왔다. 이처럼 다양한 소품을 활용한 창의적인 공연 덕분에 지



‘모두의 놀이터’ 학생 11명이 무대에 올라 그간 갈고 닦은 춤과 감성을 표현하고 있다.

켜보는 객석에서는 감탄과 웃음이 터져 나왔다. 이번 마암댄스 춤·감성프로젝트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지방보조금 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지도 강사는 “아이들이 스스로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몸으로 표현하며 자신감을 키워나가는 과정이 감동적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고씨네 별밤극장

농/촌/별/극



차 남 호

뉘엿뉘엿. 뒷산에서 내려오니 앞산 마루에 해가 저물고 있다. 이번 달 들어서 부터 날마다 집 뒤편의 야산을 타고 있다. 워낙 나지막한 산이라 '탄다' 하기가 좀 그렇고 산책이나 소요에 가까운 편이다. 그래도 한 시간 남짓 오르고 나면 이마에 송글 송글 땀이 맺힐 만큼은 된다.

농사철이 시작되면 바쁘다는 핑계로, 여름에는 덥기도 하거나와 모기 같은 날벌레가 꼬이는 통에 업무를 내기 어려웠다. 가을이 오고, 그것도 농사가 얼추 마무리되고 나서야, 그러니까 농한기에 나 누릴 수 있는 호사라 하겠다. 말하자면 어느덧 농한기로 접어들었다는 얘기고, 농사를 쉬는 대신 다른 일로 바빠지는 시절이다.

별써 그렇다. 어젯밤 내내, 정확히는 오늘 새벽까지 내리 일곱 편이나 영화를 보고 왔다. 어인 사건

이나? 이름하여 <고씨네 별밤극장>.

고산권 영화감상 동아리 '고씨네'가 기획하고, 완주미디어센터가 진행하는 마을 영화제다. '밤하늘 별빛 아래 영화를 즐기며 가을밤의 정취에 취해보자'는 취지로 마련돼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았다. 저녁시간에는 미디어센터 옥상에 스크린을 설치해 야외상영을 하고, 밤이 깊어지면 실내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긴다.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속속 모여든다. 행사장 입구에 포토존이 설치돼 갖은 색안경, 머리띠 따위 장신구를 걸치고 기념촬영을 하는가 하면 수북이 쌓인 빵과자를 담아 들고 옥상으로 향한다. 쌀쌀해진 날씨에 다들 든든히 차려입고 왔어도 여기저기 모닥불이 피워져 있다. 바닥에 늘어놓은 쿠션 의자에 차례로 몸을 누인다. 보름달 아래 자리 잡은 관객은 대략 서른을 헤아린다.

첫 영화 <봄밤>이 상영됐다. 오래 전에 원작소설(권여선 작)을 읽은 작품인데 막상 영화 스토리는 생소하기만 하다. 중증 알콜중독을 주제로 다루 실감 나는 음주 장면이 많다. 한 시간 남짓 영화가 끝나자마자 근처 마트에서 맥주 몇 캔을 사 들고 왔다.

이어 단편 극영화 <첫여름>과 다큐멘터리 <로타리의 환절>이 이어진다. 밤공기는 갈수록 차가워져 너도나도 방한 파카를 꺼입거나 담요를 두르는가 하면 모닥불 주위로 하나둘 모여든다. 상영

이 끝나고 잠깐의 휴식. 사람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컵라면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날씨가 추워진 지 금세 출출해진 모양이다.

이어진 영화는 일본 장편 <여름정원>(소마이 신지, 114분). 지난 1994년에 제작된 작품인데 국내엔 올해 여름에 개봉됐다. 작품성도 좋고 영상미도 뛰어나 뜻밖에 황재를 한 기분이다. 잠깐의 휴식과 함께 지역 뮤지션의 막간공연에 이어 실내 상영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10분에서 30분짜리 단편 독립영화 세 편-<블랙박스>, <갈비>, <월드 프리미어>-이 잇따라 상영되고 영화제는 막을 내렸다. 새벽 2시가 가까운 시간, 끝까지 자리를 지킨 사람은 스무 명 남짓. 다들 부스스한 몰골로 뒷정리를 한 뒤 '피골상절 기념촬영'에 이어 각자 집으로 향했다.

느릿느릿 일어나 피로에 찌든 채 산에 오르고 나니 온몸이 빠근하다. 그래도 '기분 좋은 노곤함'이라고 할까.

사실 이번 가을 쉽지가 않다. 초유의 가을장마로 논배미 한 곳의 수확을 포기하는 등 가을걷이에 속을 태웠다. 게다가 그동안 방아를 찧어주던 정미소가 문을 닫는 바람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 그래도 어쨌거나 한해 농사를 끝냈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비봉 염암마을

완주군의회 소식

“완주, 에너지자립 선도모델 구축 잠재력 충분”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 분산에너지 4차 포럼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11월 6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분산에너지 4차 포럼'을 진행했다.

이번 포럼에는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유익식 의장, 이순덕·김규성·서남용·이경애·성중기·유이수 의원과 지역 전문가,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수소연료전지와 ESS저장장치'를 주제로 미래 분산에너지의 기술적 동향과 지역 적용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강연을 맡은 양영근 한국가스신문사 대표는 수소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는 수소연료전지 발전 기술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융합 가능성을 중

심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 안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했다.

양 대표는 “분산에너지 시스템의 성공은 지역 단위의 실증과 참여가 핵심”이라며 “완주군이 수소도시 1번지로서 에너지 자립의 선도 모델을 구축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의 지역 수용성 확보, ESS 안전관리 체계 강화, 그리고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u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2025 올해의 소셜콧즈 추천 공모전

지원신청하세요
안주의 성장영양관

추천기간
2025. 11. 10(월)-11. 25(화)

추천대상
원주군에 소재를 둔 사회적경제조직,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지역공동체, 그외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 및 개인(본인이 본인추천 가능)

추천방법
공식홈페이지에서 추천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 접수 (wanjucoop@naver.com)

시상일정
2025년 12월 11일 저녁 예정

시상내역
총 5개소(상금 및 상패 증정)

문의 : 안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Tel. 063-905-5050, 5054

사회적협동조합
안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